

# 전주시-인근 카페 탄소중립 실천협약

### 1회용품 최소화 위한 텀블러 이용 적극 안내·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청 인근 카페들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이 없는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청사 인근 카페 18개소 대표 등이 참여해 '전주시-인근 카페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인근 카페 운영자들은 ▲1회용품 최소화를 위한 텀블러 이용 적극 안내 및 홍보 ▲개인용 텀블러 이용 시민에게 적정수준의 혜택 제공 ▲텀블러 보관함 설치 해 개인용 텀블러 보관 및 비치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매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청사 인근 카페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사용을 홍보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독려하게 된다.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텀블러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텀블러 사용하기는 사무실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청 및 인근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참여 직원들은 개인 텀블러를 상시 휴대하고 카페 방문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며, 단골카페의 경우 개인 텀블러를 비치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직원들의 유희텀블러를 수집해 시청사 인근 카페에 공용 텀블러로 비치해 출장 등 갑작스러운 카페 방문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물품 급증 및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시청사 내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1회용품 반입을 금지시켰다. 시청사 출입 시에는 되도록 1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청사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각종 회의·행사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개인텀블러 사용하기 운동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시청 주변 민간영역까지 확산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숨 쉬고 꿈꾸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공직사회부터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이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표본가구원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대상 방문 1:1 면접 조사

전주시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마지막 주까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보건복지부 지정)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법정조사이자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 255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전주시 표본가구원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행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이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삶의 질 ▲순넛기 실천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문항이 올해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전주시 35개 행정동 표본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전자조사표를 이용해 태블릿 PC로 진행)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18개 영역 163개 조사 문

항, 총 124개 지표를 생산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 질병관리청이 공표하며, 향후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본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전 ▲조사 당일 코로나19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일일 건강체크('건강체크' 앱) ▲조사 시 응답 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면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조사원증 패용 및 단체복(티셔츠)을 착용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며, 조사 참여 대상자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과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리플릿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조사원 방문 시 '우리 지역 건강정책은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종료 후 일괄 파기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 '심야산책, 내 인생의 작가' 운영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들이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작가와 소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은 25일 시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노보노처럼 살다나 다행이야', '심심과 열심', '아무튼, 여름' 등의 저서를 낸 김신회 작가를 초청해 '심야산책(冊), 내 인생의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7시부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회 작가는 '글쓰기를 일상으로 만드는 법'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글쓰는 방법을 공유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건지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꽃밭정원 등 오프라인 공간과 메타버스 안 가상공간에서 'LOST CHRISTMAS (우리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부제로 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가상공간·오프라인서 만나는 전주 매력

### 29일까지 첫마중길·경기전 일원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운영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맵 오픈해 글로벌 MZ세대 위한 이벤트 진행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시민들과 국내외의 가상의 여행객들이 전주의 매력을 느끼고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꽃밭정원 등 오프라인 공간과 메타버스 안 가상공간에서 'LOST CHRISTMAS (우리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부제로 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전주역 앞 첫마중길 투미나리에 포토존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꽃밭정원 크리스마스가든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미래 잠재 여행객들이 전주의 매력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3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에 첫마중길과 한옥마을 등이 구현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맵을 정식 오픈해 글로벌 MZ세대 대상으로 한 글로벌마케팅도 전개하고 있다. 제페토에 구성된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맵에는 첫날 오후 시간대 오픈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매일 수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관광분야 또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급부상 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 또한 글로벌마케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크리스마스행사는 전주에서 선도적으로 한 케이스로 타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오히려 본 위기를 글로벌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고질체납자 체납액 징수 총력

### 9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1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100억 원(지방세 74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변호관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